

몰아내자

심장병

최근들어 돌연사, 과로사, 심부전 등의 단어가 신문지상에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는 흔히 '심장병'이라고 통칭하는 이 병들은 병명에 따라 발병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카니즘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반대로 모든 심장병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저의 안전 기준'도 있다.

본 만화는 일본의 소학관(小學館)이 펴낸 栢木政伸씨 감수의 "몰아내자, 심장병!"을 번역한 것으로, 현대인의 심장병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등장인물

<주인공>
김태웅(41세)

은영(36세):
김태웅씨의 부인

경호(10세):
김태웅씨의
장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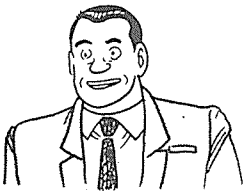
경수(7세):
김태웅씨의
차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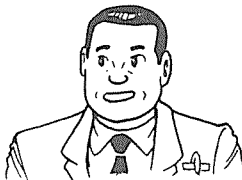
박일준(68세):
태웅의 회사 사장



한건일(46세):
태웅의 회사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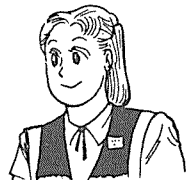
황정민(41세):
태웅의 회사 동료



강박사:
평화병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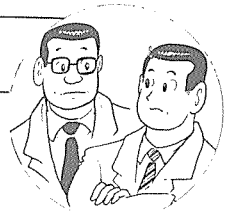
홍양희(24세):
태웅의 회사 동료



심혜숙(23세):
태웅의 회사 동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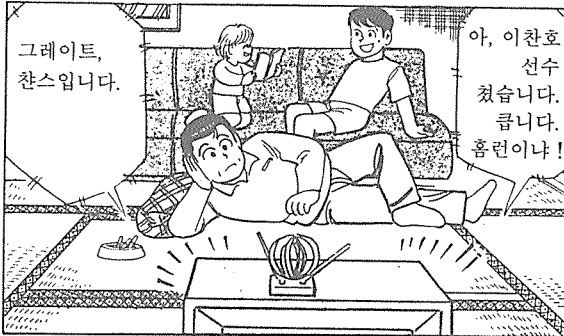
제1장

심장병이란



제1화

심장이 갑자기.....



그레이트,
찬스입니다.

아, 이찬호
선수
춧습니다.
큽니다.
흥런이나!



와 크다.
이건 틀림
없이
흥런
이다.



김만민
선수, 집프
해서 잡았
습니다.
와아
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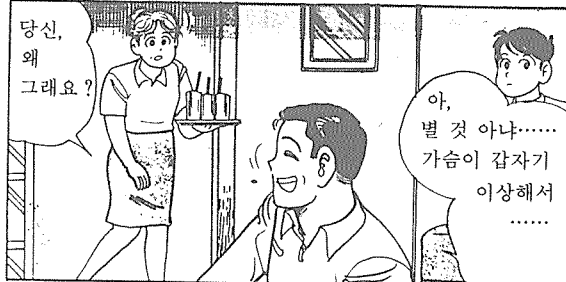


우와
아깝다
조금만
더.....

썩
아
썩

하아

하아



당신,
왜
그래요?

아,
별 것 아냐.....
가슴이 갑자기
이상해서
.....



요즘들어 자주
그러시네요.
혹시 심장에
이상
있는 것
아네요?



쓸데없는
소리,
이상은 무슨
이상.
좀 흥분했을
뿐이야.



그래도
한번 검사
를 받아보면
어때요?
그럼
안심할 수
있을텐데.

심장병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야. 난
아직 41세야.
걱정없다구.



그래도..... 작년
에 심장마비로 죽은
순일씨는
38살이었잖아요.



순일이
.....

오와, 한번에
걸자!

으윽.

하지만
그 친구는
경우가
달랐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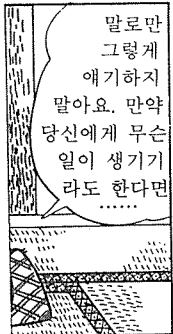


그래도 자주
가슴이 아프고
가끔 울리기도
하는 건 심장병
이었다잖아요.

이사람,
괜히
겁주지
마!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요.
내 심장은
아무렇지
않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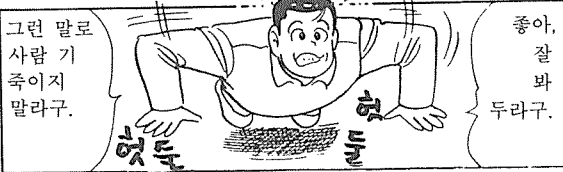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라도 한다면
.....



주택 부금도
아직
남아있구요.....

애들도 아직
어리고.....
전 어떡
하랴구요.....



그런 말로
사람 기
죽이지
말라구.

좋아,
잘
봐
두라구.



21, 22
.....
자, 어떡?
아무렇지도
않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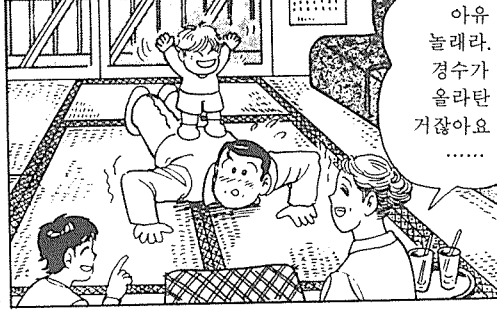
허억



여보,
왜그래요?



으,
답답해
.....!



아유
놀래라.
경수가
올라탄
거잖아요
.....

심장병의 4대 증상

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

운동을 한 후나 흥분을 하게 되면 누구나 심장이 두근거린다. 따라서 왜 주의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지만, 심장병이 있을 때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정맥(불규칙한 맥박)으로 나타난다.

부정맥은, 방치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가벼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맥박수와 리듬을 관찰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숨이 차다

심장병이 있으면 몸을 움직일 때 숨이 차다.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때 그동안 없었던, 숨이 차거나 가슴 가운데가 갑자기 조여드는 증세가 나타나면 주의해야 한다.

'숨이 차다'는 것은 호흡 곤란을 의미한다. 강도는 심장병의 정도와도 비례하고, 또 심장의 활동이 저하되는 심부전의 상태와도 거의 비례한다.

③ 때때로 가슴에 통증이 온다

가슴에 통증이 오는 병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흉통을 주 증상으로 하는 심장병은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다.

심장병에 의한 통증은 아픔이 서서히 온다거나 툭툭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앞 흉부 전체에, 협심증의 경우는 수분간(數分間), 심근경색의 경우는 수시간(數時間) 가슴이 조이면서 압박되는 것과 같은 아픔이 온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아픔은 종종 왼쪽 어깨나 왼팔 등에도 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④ 팔, 다리, 얼굴 등이 부어 오른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누구나 얼굴이 푸석푸석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라앉지 않고, 손발이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심부전의 의심이 있다.

심장마비란?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죽는대신까 마라톤을 하던 중 돌연사했거나 또는 수역장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멎어 죽는 것을, 흔히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말한다.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 심근경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세밀히 관찰하면 앞에서 말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심장마비'라는 단어는 속어이며, 의학 용어로는 '급성 심장사'라고 부른다.